

이 報告書는 国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
用役に 관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日

研究機關 : 全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研究委員 : 責任者 丁 得 圭

目 次

I. 序 言	3
II. 分断国の 統一政策	7
1. 獨 逸	7
2. 韓 国	11
3. 中 国	14
4. 越 南	15
III. 東西獨逸의 統一接近類型	18
IV. 共存政策의 새로운 論理	25
1. 共存政策의 一般性	25
2. 共存政策의 原理	29
V. 韓國의 統一政策과 均衡維持 方案	33
VI. 結 言	42

1. 序 言

分断国이란 基本的으로 戰後 美蘇兩大國의 利害關係가 相衝하여 어느 한便에도 넘길 수 없는 地域을 美蘇가 占領하여 오늘날 別個의 政府를 構成하고 있는 國家를 말한다. 그래서 分断國의 誕生은 한 마디로 말해서 民族과 國土의 分断을 強要당한 強大國 極力政治의 所産으로서 國際政治의 問題地域으로 問題化되고 있으며 強大國들은 이들의 分断狀態를 固定化시킴으로써 國際平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國家들의 狀態를 指稱한다. 그런데 第2次 世界大戰以後 國土가 分断된 國家는 韓國을 비롯하여 獨逸, 中國, 越南 등을 들 수 있지만 엄격한 意味에서 分断國의 概念을 한 國家로서의 傳統과 歷史를 가진 國家가 戰後 自國民의 意思에 反하여 強大國들에 의하여 國土가 分断된 나라라고 定義할 때 비록 오늘날 分断 狀態에 있기는 하지만 美蘇 兩大國의 世界政策에 依한 分断이 아니고 國家 内部의 革命에 依해서 分断된 中國이나 世界政治의 均衡問題와는 相關없이 局地的인 事態變化로 因하여 分断狀態에 놓이게된 越南 등은 典型的인 分断國이라 할 수 있는 韓國과 獨逸의 境遇와는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分断國家들의 共通點은 國土分断을 하나의 宿命的인 運命으로 받아 들이기를 拒否하면서 時期만 到來하면 民族統一을 이룩하여 單一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體制下에서 살고자 하는 民族統一에의 意志가 充滿해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戰後 50年代

의 冷戰時代에 있어서 東西의 分裂과 이데올로기의 對立은 分斷의 障壁을 더욱 鞏固히 쌓도록 強要했거나 아니면 緊張을 高潮시켜 마침내는 民族相殘의 悲劇을 誘發시키기까지 했으나 60年代의 國際情勢가 東西 共存의 段階에 접어들면서부터 脫이데올로기의인 東西 陣營間의 關係가 漸次 활기를 띄기 始作했던 것이다. 特히 歐羅巴에 있어서의 解氷무드는 東.西獨의 接近을 促進시킨 重要한 要因이 되었지만 이와같은 情勢趨勢와는 달리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緊張은 如前히 澎湃한 狀態에 있었음은 確이나 對照的이었다. 分斷의 要因이 強大國의 權力政治에 依해서 만들어진 結果이기 때문에 分斷國의 統合도 強大國의 責任과 協調下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道義論的主張이 提起되어지기도 하지만 國際政治의 調整 過程에서 道義的 責任을 期待한다는 것은 大端히 어려운 問題임을 勘案할 때 窮極의 으로 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分斷國의 基本 立場은 民族的 次元에서의 主體的 意識 (identity)에 두워야 할 것 같다.

國際 政治의 交駁에 따라 強大國을 비롯한 餘他國家들은 分斷國의 異質化된 體制를 各己 自己들의 立場에서 承認 또는 不承認해 오다가 이제는 모든 分斷國 問題를 一括 處理 (Package proposal) 해 버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分斷國의 立場에서는 그들의 死活 問題 (Vital issue)라고 할 수 있는 統一에의 意志를 分斷國 自體의 次元에서나 分斷國 周邊의 地域水準을 훨씬 뛰어 넘어 國際的인 issue로 處理되어 버릴 可能性을 否認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라 하겠다. 이 冷酷한 現實속에서 分斷國家가

統一目標에 接近함에 있어 不可避하게 直面하게 되는 問題는 國際政治的인 制約과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兩分體間에 解消되지 않은 敵對感을 考慮에 넣지 않을 수 없다. 50年代의 東西 冷戰體制下에 서는 말 할 必要도 없고, 오늘날의 多極化 時代에 있어서도 列強爲主의 實利主義的 權力政治속에서는 信義와 道義는 흐려지고 弱小國들의 運命이 強大國들에 依해서 一方的으로 犧牲될 可能性이 尙存하고 있음은 美·中共間의 和解와 日·中共間의 修交過程에서 빛어진 自由中國의 運命에서 如實히 지켜 볼 수 있었으며, 또 하나의 予見할 수 있는 點은 兩分體를 固定化시키게 되는 等距離 外交와 兩分體에 對한 承認은 統一을 沮喪하거나 分斷을 長期化시키게 될 外的 要因이 된다.

一般的으로 分斷國 問題가 國家形態로서의 分割이나 合成이 아니고 이른바 勢力均衡的인 政治的 分斷現象이기 때문에 그 歸一이나 合成이 傳統的 理論의 範疇內에 있지 않다는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統一問題에 關해서 보다는 오히려 自體의 政局安定과 戰後의 經濟秩序와 復舊事業에 第一次의 國家政策 目標를 두고 있 趣向의 境畵를 비롯하여 長期化된 分斷속에서 퇴색해 버린 大陸收復의 꿈을 안은채 中共으로 부터 加해지는 모든 庄力에 진디기 위해 말없이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있는 自由中國과 歐羅巴 國際政治의 現實을 直視하고 「한 民族 두 國家」라고 하는 立場에서 統一의 中間段階로서의 東方政策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고 있는 獨逸 그리고 19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聲明을 基點으로 해서 平和的 民族統一을 위한 南北對話

를 進行하고 있는 韓國은 各已 統一政策의 方向과 進行을 自國의 現實的인 條件에 따라 相異하게 展開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名白한 事實은 分斷國의 統一은 國際平和를 위해 有益한 冷戰의 決算이며 緊張緩和의 趨勢에 副應되는 바람직한 일이라 믿어지기 때문에 分斷 個體間의 接近은 幅넓은 綜合的 接近 (interdisciplinary approach) 이 效果的인 統一方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本 論文에서는 分斷國家의 統一類型을 比較 檢討하여 韓國의 統一모델을 誘出하고 同時에 南北間의 共存政策의 現實성과 共存維持를 위한 方案을 究明코자 한다.

II. 分断국의 統一政策

I. 独 逸

分断國中 現實主義의 立場에서 가장 積極的으로 相互接近을 試圖하고 있는 나라가 東西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활발한 統一政策을 始動할 수 있었던 基盤은 兩國關係(兩陣營間)가 政治, 經濟, 社會等 諸分野에서 다른 分断地域보다는 安定基調위에 相互關係가 힘의 均衡을 維持하고 있다는 事實에 있으며 또 게르만民族 特有의 精神的 連帶意識은 獨逸의 再統一을 許容할 수 없다고 하는 外部的 強制에 對한 心理的 反作用으로서 東西獨의 接近을 促進시켰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分断된 東·西獨 關係의 正常化를 표방한 社民黨의 브란트政權이 지난 1969年 10월에 出帆한 以來 西獨은 獨逸領土內에 <두個의 獨逸>을 既定事實로 認定하면서 積極的인 東方接近을 戒한것은 于先 獨逸 再統一의 基本要件이 되는 民族의 連계性을 回復하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東獨에 對한 政策은 多分히 西獨의 優位性을 前提한 것이며 具體的으로는 東獨의 西獨에로의 吸引作用을 計算하고 있는 것임은 否認할 수 없다.

브란트의 東方接近政策(Ostpolitik)의 反應으로 70年 3月과 5월에 東·西獨會談이 開催되었고, 다음해 5월에는 울브리히트의 辭任으로 非妥協的인 울브리히트 獨트린이 後退하면서 西獨과의 對話는 活氣를 띄기 始作했다.

이와같이 西獨의 統一接近은 東歐圈接觸에 機先을 잡았고 마침내 70年 8月 蘇聯과 平和條約을 締結한데 이어 폴란드와는오델 . 나이제 江以東의 獨逸領土가 폴란드에 歸屬함을 承認하는 平和條約을 締結하므로서 現實主義的 基礎위에 段階的 接觸을 擴大하려는 統獨姿勢를 能動的으로 取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 東獨도 西獨에 類似한 統一志向의 패턴으로 變化하고 있다.

하지만 獨逸再統一을 위한 努力은 分斷 27年동안에 몇段階의 變化를 거듭해 왔는데 이는 國際環境의 變化와 內在的 統一力量의 變化에 起因하였던바 西獨의 境遇에 있어서 基民黨執政下의 統一政策은 分斷의 論理가 強要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아데나워政權은

(1) Status quo의 維持를 反對하고 1937年의 獨逸領土의 收復을 至上目標로 했고 (2) 東獨政權을 國家로 承認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西方側 三國과의 同盟關係에 따른 武力強化와 核武裝으로 蘇聯과 東獨을 갈복시켜 再統一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3) 外勢에 依하여 統一獨逸이 中立化되는것은 民族의 自決權을 侵害하는 것이라는 立場을 堅持했다.

그러나 케네디大統領과 흐루시초프間의 緊張緩和政策에 依한 平和共存策의 影響을 받아 에어하르트首相은 東獨에 對하여 現狀維持의 現實的 基礎위에서 再統一을 論하게 되었지만 특히 키징거 . 브란트의 大聯政下에서 부터 漸次 對東歐政策을 變更하여 東獨의 存在를 事實上 承認하고 單獨代表權을 포기하여 西獨의 外交基調를 이루워온 할 슈타인 (Hallstein) 原則을 擯棄함에 이르렀다.

西獨이 全獨逸을 代表하는 唯一한 自由 合法的 政府라는 主張은 할슈타인原則에서 如實히 反映되고 있는 것이다.

할슈타인原則은 한마디로 말해서 西獨政府和 公式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第三국이 다시 東獨과 外交關係를 樹立하는 것은 獨逸의 分割을 深化하는 非反好的인 行爲로 看做하여 外交關係를 斷切한다는 論理로서 1953년까지를 할슈타인原則의 出生期로 볼 수 있고 54년에서 70년까지의 17年間을 3期로 나누워 할슈타인原則의 施行期 變質期 止揚期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즉

第1期인 施行期는 1954년부터 59년까지의 6年間으로 볼 수 있는바 美, 英, 仏의 런던聲明으로 西獨은 全獨을 代表하는 唯一한 合法政府로 共認됨으로써 NATO와 WEU에 加入하고 內外的으로 自体安定의 基盤을 굳혀갔다.

이 時期에 東獨은 主權宣言을 하고 東獨과 蘇聯間에 國家條約을 締結하면서 西獨에 맞섰으나 西獨은 1951年以來 東西獨間의 交易約定을 持續하면서 56年以後 體育分野에서는 東西獨의 全獨팀 構成을 實現했고, 統一促求의 한 方便으로 蘇聯과 國交를 樹立하는等 獨逸的인 特性이 짙은 錯雜한 多元的 措置가 안팎으로 竝行되었다.

이 時期에 유고, 유바, 아랍諸國과의 斷交措置를 取했는데 이는 獨逸統一의 沮害要因을 없애고자 하는 Hallstoin原則의 實施라고 본다.

第2期の 變質期는 1960년부터 65년에 이르는 時期인데 이 變質期의 基調를 이룬 要因은 다음 3가지로 集約할 수 있다.

(1) 흐루시초프와 케네디가 1961年 뷔엔나會議에서 獨逸問題를 비롯
한 모든 當面問題를 武力에 呼訴하지 않을것을 約定한 所謂 冷戰時
代의 終焉이라고 하는 事態의 發生이며,

(2) 1950年의 폴란드, 헝가리의 反革命後 蘇聯 衛星圈인 東歐內
部に 自由化傾向이 현저히 高潮되었다는 것이다.

(3) 1961年의 西獨 總選 結果 聯立內閣이 樹立되면서 進歩的인
對外政策이 選擇되었다는 것 등의 事態 進展으로 말미암아 Hallstein
原則은 法的 妥當性에 對한 冷酷한 批判에 直面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流動的인 國際情勢에 適應할 수 없게 됨으로써 孤
獨한 原則의 固守者로 軋落하여 國家利益에 害로운 結果를 自招할
憂慮가 있다는 判斷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1961年 西獨下院은 「西獨의 國家利益이 犧牲되지 않는 限
東獨을 承認한 諸國과 國交를 正常化해야 한다」고 決議했고 이어서
슈뢰더外相은 「戰後時代에 끝을 맺고 東歐諸國과의 關係改善을 企圖
하는것이 國家利益에 一致된다」고 했으며, 엘할트首相은 「國家利益
에 必要하던 現念的인 原理에 拘碍됨이 없이 東歐諸國과도 外交關係
를 樹立할 用意가 있다」고 主張하여 마침내 東獨과 關係를 맺고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62年),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63年)
等과 通商協定을 締結했으며 通商代表部까지 設置함에 이르는 變化를
했다.

第3期인 止揚期는 1966年以後의 時期로서 Hallstein原則이 排除
되면서 놀라운 變化를 했던 時期였다. 66年 西獨政府가 闡明한

新外交政策에 依하면 傳統的인 国土統一政策을 樹立하지 못한채 오메르 나이제 國境問題가 第3國과의 交涉手段으로 轉落되고 또 中立國의 東獨承認 防止에 너무나 많은 努力과 費用이 浪費되었지만 完全히 失敗했다는 것을 是認하고 Hallstein原則을 止揚하는 對東歐政策으로서 現實적이고 實利的인 多元外交의 實現에 力點을 두고 있다.

2. 韓 國

韓國은 UN 第2次總회의 決議(1947. 11. 14)와 小總회의 決議(1948. 2. 26)에 依해서 UN 韓國監視 委員團이 接近할 수 있는 韓國內 地域에서 5月 10日 總選舉를 實施하여 制憲國會를 構成했고, 1948年 5月 31日 召集된 制憲國會에서는 北韓의 人口數에 比例한 議席 約100席에 對하여 自由選舉에 依한 代表 選出을 促求했다.

그러나 金日成은 外來侵略勢力의 撤収를 主張하면서 이 侵略勢力으로부터 国土를 防衛하고 民主改革의 成果를 防衛하기 위하여 人民의 軍隊를 모든 方面에서 強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것은 北韓이 南韓에 對한 武力的인 共產主義的 統一을 示唆한 最初의 發言이기도 했다. 그後 UN 第3次 總회에서 大韓民國이 合法的政府임을 宣言함으로써 韓半島에 있어서 唯一한 合法政府의 根拠가 마련된 것이다.

그後 北韓은 機會가 있을 때 마다 平和統一을 되풀이 해오다가 마침내 武力에 依한 6.25의 亦化統一策略을 敢行하고 말았다.

이事態를契機로 UNCURK가 誕生되었고, 韓國政府의 統一政策은 北進統一型으로 기울게 되었음은 잘 아는 事實이다.

그러나 1954年 6月 제네바에서 열린 政治會談에서 韓國統一에 關한 韓國側 提案은

(1) 統一獨立 民主韓國을 樹立할 目的으로 UN決議에 依拠하여 UN 監視下에 自由總選舉를 實施한다.

(2) 現在까지 自由選舉가 不可能했던 北韓地域에 大韓民國의 憲法節次에 따라 自由選舉를 6個月以內에 實施한다.

(3) UN監視委員團에 依한 選舉監視를 通해 自由 雰囲気를 造成하며 行動, 言論의 完全自由를 享有케 할 것.

(4) 全韓國議會의 議員數는 全韓國의 人口에 正比例한 것등 14個項이 있는데 北韓側 代表 金日의 提案은

(1) 全外國 軍隊의 撤収가 講究될 것.

(2) 南北韓은 1年以內에 各各兵力을 10萬以下로 減縮할 것.

(3) 南北韓의 交流回復條件을 만들기 위하여 經濟, 文化關係의 確立에 合理的 方法을 講究하고 履行하기 위한 全韓國委員團을 구성할 것등 6個項의 提案을 내놓은바 있다.

韓國의 統一原則은 參戰 16個國의 共同宣言이나 UN總會의 諸般決議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UN의 權能을 否認하고 南韓에 있는 外國軍隊의 撤収를 主張하면서 自身이 武力南侵의 挑發者임을 忘脚한듯 平和統一論을 反覆해 왔다. 自由黨의 統一政策은 6.25의 적개감에서 緣由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北進統一에 固定되었고 民主黨執權下의 統一政策은 큰 變化는 없지만 (1) 平和的

統一을 實現하더 (2) UN監視下에 大韓民國의 憲法節次에 따른 南北韓 總選舉의 實施를 統一政策의 基調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時期에 革新系 政黨에 依한 無謨한 統一論과 南北協商提議는 無責任한 統一論議를 誘發하여 不安한 社會混亂을 惹起시켰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60年 8月 金日成은 南北韓聯邦制를 提案하는등 平和統一攻勢를 積極化하여 韓國과 對等한 地位와 資格을 國際社會로 부터 얻어낼려고 안간 힘을 다 썼던 것이다. 이와같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和戰兩面作戰으로 南韓의 亦化統一을 試圖하고 있는 北韓에 比해서 南韓의 統一方案은 名分爲王의 安逸主義的 姿勢를 止揚하지 못했던 것이 事實이었다. 1961年 5.16革命으로 統一方案은 「民族的 宿願인 國土統一을 위하여 ……實力培養에 全力을 集中한다」는 革命公約에서 볼 수 있듯이 統一에 對備하는 國內力量의 培養에 力點이 주워졌지만 UN監視下의 南北總選舉 原則에는 아무런 變動이 없는 것이었다. 現在 民主共和黨의 統一政策基調도 (1) 積極外交가 統一成就에 다가서는 確實한 作業의 一環이며 (2) UN監視下의 南北韓 人口에 比例하는 自由選舉 方法을 堅持한다. (3) 우리가 志向하는 祖國近代化야 말로 國土統一의 大前提이며 中間目標라는데 두고 있다. 그러다가 70年代 國際情勢의 劇的 變化도 ……하여 70年 7月4日의 南北韓 共同聲明을 基點으로 統一論議가 現實化 되어 統一을 위한 對話에 새로운 紀元이 마련되었지만 統一에 이르기엔 너무나 많은 고비가 가로 놓여 있음을 目擊하고 있다. 그동안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의 會議가 數次 걸쳐 開催되었지만 期待하는 것 처럼 큰 進展이 없었다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그러나 이러한 南北間의 對話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함에 미친 影響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南北統一을 위한 韓國의 스타일은 獨逸의 경우처럼 積極的인 東方接近이나 現實主義的인 承認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지만 南北對話를 뒷받침하는 政治體制의 補完과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통한 國力의 組織化에 依한 自由民主社會의 優秀性을 堅持하는 것이 統一에 對備한 第1次 目標로 設定하고 있다.

3. 中 国

自由中国은 1949年 12月 大陸으로 부터 台湾으로 옮겨온 以後에도
출공 大陸은 將次 收復해야 할 領土라고 主張하면서 政策의 第1次
目標을 大陸反響에 두었던 大陸收復型的 統一政策을 堅持해 왔다.

同時에 中国의 正統政府라고 하는 立場에서 國際聯合등 국제사회에서
의 權能과 義務(UN에서의 分担金問題)를 저운것은 西独이나 韓國의
경우와 다를바 없다.

1962年初 蔣總統의 大陸收復呼訴에 따라 行政院直屬으로 經濟動員計
劃 委員會와 國防部에 戰時政務局을 新設하여 國防費調達을 위한 臨時
國防特別 措置法을 公布한 바 있다.

한편 大陸(本土) 收復을 위한 專担機構로는 總統直屬下에 大陸光復
設計研究委員會를 設置하여

(1) 國府가 大陸에서 慘敗한 根本原因의 研究 (2) 現中共政權에 正面
으로 對立 할 수 있는 方案의 研究 (3) 大陸 收復以後 中共政權이 突
施한 諸政策의 顛覆方案 研究등을 行하고 있으며 收復後에 對備해서
收復後에 突施할 政治·經濟·社會·軍事 등 各部門別로 分類研究하고 있
으며 現中共政權이 土地를 國有化시킨데 對해서 收復後 私有制度로 轉
換할 土地改革의 研究 및 兵役制度和 軍政突施 등을 研究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中共은 所謂 台灣解放鬪爭을 위한 機構로서 民主統一戰
線의 一環인 [中國人民 政治協商會議]를 設置하고 이 산하에 台灣民

主自治同盟과 中国共産党 中央委員會 [統一戰線 工作部]를 設置하고 台湾의 解放鬪爭을 進行시키고 있다.

그러나 中共이 U N에 들어오고 台湾이 U N에서 逐出당하게 됨으로써 中国에는 完全히 二個의 政府가 存在하고 있음이 既定事實化되고 오히려 中共이 中国人民의 正統政府라고 主張함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中共의 國際的 地位向上과 發言權의 強化는 自由中国에게 不利한 処地로 몰고 갈 可能性을 增大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事態의 變化로 自由中国은 非現實的인 統一論議보다는 말없이 스스로의 힘을 기른다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4. 越 南

越南은 네個의 分断國中 가장 不安한 情勢下에 있기 때문에 民族의 統一問題라고 하는 將來問題보다는 當장 戰後의 復旧事業과 治安과 經濟秩序의 安定問題가 더욱 緊要한 處理에 있다. 越南事態는 Nixon Dootrine에 따른 越南化計劃의 成功的 遂行이 무엇보다 重要的 當面課題이지만 아울러 라오스와 크메르事態등 인도지나半島의 全般的 安定과 關聯해서 越南의 將來問題가 論議되어야 할것으로 믿는다.

그렇다고 越南에 統一政策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며 將來에 있어서 반드시 베트남의 民族統一이 提起될 것으로 믿는다. 다만 現在의 情勢가 先安定 後統一論議가 될 것 이라는것 뿐이다.

歴史的으로 베트남의 統一過程을 考察해 보면 1945年 9月 胡志明을 盟主로 하는 베트남 獨立同盟이 獨立을 宣言하고 다음 해인 1946年

12月 프랑스에 對해 獨立戰爭을 宣布했다. 이 戰爭은 第2次 世界大 戰이 終了된 直後인 1946年부터 54年 7月 제네바協定이 成立된 時 期까지 8年間 繼續되었는데 同協定の 結果 越南은 完全獨立을 획득했 지만 停戰을 위한 軍事分界線인 北緯 17度 線은 南北의 兩政府가 서게되 는 事態에 까지 發展하고 말았다.

제네바會談 最終宣 言書에 越南統一이라고 하는 政治問題는 國際監視 委員會 監視下에 2年後인 1956年 7月에 實施될 總選舉를 通해 主權 統一 및 領土保全의 諸原則에 立脚하여 解決되어야 한다는 點을 明白 히 規定해 놓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카나다·印度·폴란드等 3個國 代 表로 構成된 國際監視 委員會는 雙方에 依한 條約違反을 矯正할 能力 을 갖지 못했고 더욱 重要한것은 南部 越南의 고딘·디엠政府和 胡 志明政權間的 不信과 對立으로 予定된 再統一選舉를 實現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後 越南은 10余年間의 戰爭을 치루워 왔고 現在에도 越南政府로 서는 共產威脅을 除去하는데 第1次的인 政策目標를 두고 있음으로 統 一政策도 國內情勢의 安定과 함께 成熟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現在로서는 西獨의 全統獨問題省이나 韓國의 國土統一院과 같 은 政府機構는 設置되어 있지 않았으나 政府의 統一問題에 對한 諮問 에 應하고 있는 [Council of sage]와 18名의 法律家와 學者로 構成되어 越南의 統一問題와 其他 問題를 非公式으로 研究 論議하고

있는 [Caraville Group]이 있는 程度이다.

그러나 越盟은 表面화된 統一問題 担當機構는 없지만 所謂 統一戰線
体인 [베트남 祖国戰線]과 南部越南에 組織된 [南部 越南解放戰線]
과의 緊密한 協力下에 武力手段에 依한 全越南의 亦化統一을 推進해
오코 있는 것이다

Ⅲ. 東西獨逸의 統一接近 類型

아데나워 內閣의 全期間과 에서하르트 內閣의 統獨政策은 獨逸民族의 目決에 依한 東西獨의 統一을 그 窮極目標로 해왔기 때문에「하나의 獨逸」을 追求했던 西獨의 獨逸政策은 當然히 唯一한 合法政府의 行勢를 取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50年代末부터 國際情勢가 對決에서 緊張緩和와 現狀凍結에 큰 旋回를 하게 됨에 따라 西獨의 統獨政策에도 새로운 轉機가 不可避하게 要請되던차 60年代後半에 社会民主党이 20年만에 聯邦政府의 與黨으로 登場하면서 「한 民族 두 國家」라고하는 統獨政策이 크로즈 얼되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轉機가 이룩된데는 東·西獨의 統一이란 現實적으로 期待하기 어렵다는 國際情勢의 判斷 즉 歐羅巴의 平和를 위해서는 戰後에 이룩된 Status quo의 承認과 凍結이 不可避하다고 하는 國際政治的 強要에 對한 認識과 分斷의 克服이 不可能한 以上 東西 두獨逸의 關係에서 살고있는 住民들을 人道的으로 견딜만한 暫定狀態로 改稱하고 正常化시켜야 하겠다는 要請이 뒷받침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지속해온 相互否定的인 두獨逸의 對立關係를 相互承認의 併存關係 乃至 共存關係로 轉換하자는 것이고 그 結果로 表明된것이 「한 民族 두 國家」政策인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東獨의 承認問題에 있어서 明白한 限界線을 긋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1969年 社会民主党과 自由民主党의 聯立政府가 誕生한 直後

브란트首相은 그의 첫施政演說속에서 비독 獨逸 땅에 두箇의 國家가
夾在한다고 하드레도 그 두箇의 國家는 相互外國이 아니며 이들간의
相互關係를 特殊한 方法으로 規制하여 相互共存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말은 西獨政府의 公的用語로서는「特殊한 關係」라는 뜻으로 結局
西獨政府는 東獨에 대해 國際法的 承認 (Völkerrechtliche Aner-
kennung) 은 삼겼으며 兩獨關係는 어디까지나「獨逸內的 關係」라고
했지만 「한 民族 두 國家」政策은 兩獨關係가 「非關係」「否定的
關係」로 굳혀진 後來의 否定的인 關係를 止揚하고 關係正常化를 志
何하는 積極的이고 肯定的인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브란트首相의 東方政策의 哲學에는 國家的 單一性和 民族的 單一性
을 同一視하지 않기 때문에 復讐國家의 存在가 반드시 民族的 單一
性を 沮害하는것이 아니라고 하는 立場에서 獨逸統一의 可能性을 멀
리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方法만이 歐羅巴의 平和를 위한 길이며
強大國의 要求에 副應하면서 國際政治의 制約을 벗어나는 길이라 생
각한 것 같다.

事實上 獨逸의 境遇 政治的으로는 오랫동안 復讐國家의 體制를 갖
고 있으면서도 民族의 單一性を 지켜온 歷史的 經驗을 갖고 있다.
神聖 로마帝國時에도 그랬고 獨逸聯邦 時代에도 여러箇의 國家로 나
뉘져 있으면서도 獨逸民族의 單一性を 喪失하지 않았던 것이다.

韓國의 境遇와는 달리 이러한 歷史的 經驗에서「한 民族 두 國家」

政策이 選擧되었는지는 모르지만 分斷國中 가장 積極的이고 現實的인 統一 政策을 試圖한 나라가 獨逸이라 생각할 때 여기에는 獨逸 特有의 背景과 要因이 있는 것이다. 其中 가장 두드러진 原因의 하나가 政治 經濟 社會 軍事등 여러分野에서 比較的 安定狀態를 維持하는 가운데 相互 勢力均衡을 維持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또다른 하나는 強大國들이 東. 西獨에 對한 現狀凍結政策을 強要하는데 對한 겔르만 民族의 心理的 反作用이 東. 西獨 關係를 接近시키는데 促進劑가 되지 안했는가 생각한다.

어떻든 東. 西獨은 28年 동안의 異質的 體制下에서 安定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統一接近의 可能性을 增大시켰으며 또한 西獨의 東方接近政策 亦是 国力의 相對的 優位性에서 出發하고 있다는 事實은 우리의 統一姿勢에 적지 않은 教訓을 주고 있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브란트의 統一論이 消極的인 主張인것 같으나 오늘날 獨逸을 둘러싼 國際的 條件을 勘案 할 때 虛構的인 統一論議가 아닌 實利的이고 合理的이고 現實的이라고 認定되고 있다.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西獨의 初期 統獨方案도 平和的 手段에 依한 再統一原則이었으며 國際監視下에 全獨逸이 自由總選舉를 實施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統一方案이 어렵다는 觀點에서 統一成就에 對한 興奮이나 感傷的 呼訴보다는 冷徹한 現實主義에 立脚하여 優先 国力增進에 力點두고 統一에 阻害되는 要因을 除去하는데 努力을 해왔지만 브란트의 東方接近 政策의 窮極的 目標은 東. 西獨의 統一에 歸一함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다. 이런 過程은 韓國의 統一政策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또한 西獨은 後見勢力인 美. 英. 仏. 소 四大國을 獨逸民族의 統一
무-드에 捲어들여 獨逸統一을 人爲的으로 妨害하지 못하도록 하고
同時에 東. 西 緊張緩和政策으로 因하여 獨逸問題가 連結되는것을 막
기 위해 四大國의 常設 統獨委員會를 設置하여 4 個의 基本原則을
提示하고 있는데 (1) 四大國은 獨逸統一의 義務를 지고 있다.
(2) 臨時的 解決策의 講究가 아니라 獨逸의 再統一을 그들의 對東獨
政策의 主要目標로 한다. (3) 獨逸의 再統一은 軍縮 및 유럽의 安
全保障과 結付하여 進行되어야 한다. (4) 獨逸分斷으로 惹起되는 人道
的 被害 乃至 不公正을 除去하기 위한 万途가 講究되어야 한다는것
등이었다. 또한 西獨은 美國과 密接한 協力下에 奇蹟的인 經濟發展
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國力의 優越性을 바탕으로 莫強한 軍事力
을 保有한 世界強大國으로서의 地位를 굳힌 西獨은 對東歐政策에 있
어서 自信을 갖고 있다. 經濟的인 接觸에 있어서도 1949年 東. 西
獨間에 交易信託所를 두워 經濟交流를 行해 왔으며 特히 51년에는
이것이 占領地域間의 交易協定으로 發展했다. 1970年 現在 東. 西
獨間의 交易規模는 45億 4,800萬마르크에 達했고 西獨은 東獨의
主要通商 對象國으로서 東獨對外貿易의 10%以上을 占하고 있다.

西獨으로서는 (1) 東獨市場을 美. 英에 내어 팔기지 않겠다는 意圖
이며 (2) 東獨으로 하여금 對西獨依存度를 높힘으로서 東獨을 政治的
으로 操縱하고 그門戶를 조금이라도 넓히려는데 主된 目的이 있다.

따라서 따라서 西獨은 베르린問題와 其他 政治問題解決의 매개手段으로

經濟交流을 利用하고 있는데 1962年 6億弗 1963年에 8億弗의 借款申請이 西獨政府에 依해 베르린障壁이 除去되지 않은限 提供할 수 없다는 理由로 把絶當 하자 東獨은 64年 借款要請時에 約萬名의 政治犯에 特赦令을 내린바 있다.

社会的인 接觸에 있어서도 人的往來에 重要한 意味를 賦與하여 最近까지 西獨人의 東獨旅行은 年1回 4週間 동안 東獨內에 살고 있는 近親訪問이 行해졌으며 東獨人의 西獨旅行은 57年 旅行制限이 強化된 以後에는 65才 以上の 年金生活者에 限하여 許容되어 왔으나 72年 5月 12日 東. 西獨 通行에 關한 最初의 國家協定으로 兩獨間의 人的交流은 劃期的으로 進展되어 갔다.

어떻게든 지금까지 考察한 複雜한 背景과 制約下에서 兩獨間에는 非政治的 分野의 交流을 활발하게 實現시켜 오다가 關係正常化를 위한 交渉은 69年 12月 18日 울브리히트 東獨國家評議會 議長이 하이케만 西獨大統領에게 兩獨이 對等한 立場에서 條約締結을 提案하는 親書를 傳達함으로써 처음으로 兩獨間의 公式채널이 마련되었다.

그後 同正常化 交渉은 70年 3月 5日 兩次に 걸친 브란트. 슈토프首相級會談이 이루어졌고 72年 6月부터 8次に 걸친 實務者 級會談끝에 마침내 兩獨間의 共存을 위한 基本條約이 妥結을 보게 되었다. 72年 11月에 마련된 東. 西獨基本 條約에는 獨逸國民의 單一性問題, 現狀認定 問題, 西베르린 問題, 東. 西獨間 實際的인 協調 問題 其他 財産處理 問題, 言論人 交換保障規定, UN加入 問題등이 重要한 內容으로 되어있다. 이 基本條約案이 假調印된 다음날인

11月9日 独逸問題에 对한 美. 英. 仏. 소 四大国 宣言을 發表하여 同 四大国은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 民主共和國의 UN 加入申請을 四大国의 提案으로 支援토록 合意했으며 이와 關聯하여 이러한 會員國資格이 決코 四大国의 權限과 責任 또는 이에 적절히 相應하는 四大国間의 合意 諸決定 및 慣行에 저촉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確認했다.

東. 西基本條約에 对한 西独政府의 解說에 依하면 戰後 独逸歷史는 점점 深化되는 民族의 分裂로 特徵지워졌고 現在 두個의 國家에서 相異한 同盟에 屬하는 相反되는 社會體制속에 살고 있으므로 이상의 分斷된 生活을 防止하고 緊張을 除去하여 同族意識을 強化하는 現實的인 政策目標은 平等의 原則에 基礎되는 條約의 締結만으로 可能하다고 確信하며 聯邦政府는 同盟國들과 이條約이 簽與하는 緊張緩和政策이 平和를 위하여 必要하고 同盟의 利益에도 合致된다고 合意를 보고 두個의 國家는 條約이 批准된 後 UN의 會員國이 되고자 , 加入申請書를 同時에 提出할 것이라느 것이다.

條約當事國들은 UN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遵守 할 것이며, 大使를 交換하지 않고 常駐代表部를 두고 人道的 問題에 있어서 條約의 發効와 함께 可能한 家族再會와 旅行緩和 書翰交換의 範圍를 擴大하여 將來에 夫婦들이 再會하고 父母들이 子女곁으로 移住할 수 있고 東. 西獨의 独逸人間에 自由로운 結婚이 可能하게 될 뿐만 아니라 4個의 國境通過地點이 旅行者를 위해 더 開設된다는 것이다.

基本條約 前文에 나타나있는 主要內容들은 平和維持에 对한 責任(歐羅巴에 있어서 緊張緩和과 安全保障)과 歐羅巴諸國의 國境不可侵, 領

主保全, 主權尊重, 그리고 兩獨關係에 있어서 武力에 依한 威脅 및 武力使用의 禁止를 為해 兩獨의 體制와 理念의 相異性を 超越하여 相互協調할 것을 밝히고 아울러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다음 같은 原則을 列挙하고 있다. 즉 相互平等에 基礎를 둔 善隣關係의 發展(1條) UN憲章의 目的과 原則의 遵守(2條),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3條), 单独 代表權의 否認(4條), 軍備制限과 軍備縮小에 對한 協力 原則(5條), 主權의 現領土에 限定된다는 原則(6條), 人道王誠的 諸問題를 비롯하여 經濟 科學 技術, 交通, 司法 公訴, 郵便, 通信, 電話, 保健, 文化, 運動경기, 環境保護에 關한 協定 締結(7條), 兩獨間의 常駐代表部交換(8條), 既存條約의 効力認定(9條), 批准과 發効(10條) 등으로 되어 있는데 獨逸의 統一接近은 여러가지 點에서 다른 條件을 갖고 있지만 南北韓의 統一類型 誘出에 示唆하는 바 크다고 믿는다.

Ⅳ. 共存政策의 새로운 論理

1. 共存政策의 一般性

共存政策이란 理念과 制度의 相異性에도 不拘하고 對立 또는 敵對關係에 있는 國家間 或은 集團間에 相互生存을 保障하기 위하여 制限的인 協力關係와 對立關係의 現狀을 維持하는 政策을 追求하는 政治現象을 말한다.

그럼으로 共存關係는 一面 競爭 一面 協調라고 하는 二重構造的 性格을 갖게 되는바 共存 共生の 可能性은 敵對關係에 있는 雙方의 勢力이 거의 비슷한 力学關係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며 이들 相互間에 지나친 對立과 競爭을 回避하는 것이 生存을 위해 相互利益이 되며 同時에 相對方의 現狀을 根本的으로 變革시키지 않겠다는 現狀維持政策이 基調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動物世界에서도 犬猿之間의 敵對關係를 共生關係로 維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오늘날 社會學者 P. Selznik이 指摘하고 있는 Cooptation도 異質的인 社會集團間의 共存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人類의 歷史發展 適程을 考察해 볼때 現代에 들어와서 처럼 異質 社會間의 共存과 平和的 關係의 維持가 切實하게 要求되었던 때도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家間에 相互依存度가 현저히 增大하여 特別히 經濟 交通 通信分野에서 아무리 強大한 国力을 가진 國家라 할 지라도 獨自的으로는 살 수 없는 不可分的 相互依存性이 增大 되었다는 事實과 第二次 世界大戰以後 急進的인 發達을 해온 兵器科學의

놀라운 技術이 戰爭性格을 根本적으로 바꾸워 놓았다는 事實이다.

예를 들면 核武器의 登場과 더불어 水素爆彈이 開發되고 強大國間에 競爭的인 軍備補充으로 이미 美國의 核武器独占은 數個國의 核保有時代에로 代替되어 버린 오늘의 事態는 순식간에 全人類를 破滅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絶對武器로 恐怖의 均衡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數萬메가톤의 核彈頭를 積載하고 大陸을 날을 수 있는 ICBM과 獨立目標을 向해 數個의 核彈頭가 하나의 미사일에서 分散發射되는 MIRV 등의 出現은 戰爭抑制만이 自己生存을 위한 길을 意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戰爭의 危嶮으로 부터 살아 남을 수 있는 方法이 平和共存政策일 수 밖에 없었던 기이며 이 共存政策을 追求하기 위해서 異質體制間의 緊張緩和과 平和共存은 不可避하다고 보아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戰後 極限的인 對立과 鬪爭을 해왔던 美·蘇間에는 좋은 삶던 平和共存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 平和共存에 가장 重要한 原則은 現狀維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勢力의 均衡으로 共存이라는 큰 배(船)를 띄우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Balance of power는 共存政策의 Timer이기도 하다.

一部學者들의 見解에 따를것 같으면 蘇聯의 外交 中心任務는 Status quo) 보다는 現狀變革에 있으므로 美·蘇間의 平和共存이 現狀維持政策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判斷이라고 主張되기도 한다.

平和共存이란 表現은 同一하지만 平和共存의 모델을 分析함에 있어서 蘇聯型과 中共型의 共存路線을 明白히 區別해야 할것 같다.

즉 蘇聯型이 現狀維持政策을 土臺로 하고 있는데 反해 中共型이 貫徹하려고 하는 것은 現狀變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美. 蘇間의 對立이 즉각적 大量報復 (immediate massive Retaliation)의 基本 態勢를 堅持하면서 戰爭一步前 (Brinkmanship)의 極限狀況까지 물고 가기도 했으나 아이젠하워大統領과 흐루시초프首相과의 켈프. 데이 비드會談이나 존슨大統領과 코시킨간의 그라스보로會談 (67. 6) 그리고 戰略武器 制限會談 (SALT) 등은 비록 共產圈內部에서 敎條主義的인 中共의 反撥을 誘發하여 修正主義란 非難의 論爭을 惹起하기도 했지만 分明히 蘇聯은 平和共存政策의 모색을 積極적으로 試圖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共存政策은 蘇聯外交의 基本路線으로 定着되어 심지어 브레즈네프에 依하면 平和共存은 共產主義의 最後勝利를 위한 轉換期的인 用語라고 까지 表現하고 있다.

오늘날 美蘇間의 共存政策 모색을 여러 分野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특히 核擴散防止條約과 戰略武器 制限會談등에서 현저한 協力關係를 維持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核武器戰爭의 止揚과 衝突防止가 兩國의 重大한 國家利益의 內容을 充足시키며 同時에 共存을 保障하기 위한 不可避한 方法이기 때문이다.

蘇聯은 國際共產主義 運動과 民族解放運動의 推進者로 自勉하면서 資本主義에 對한 鬪爭을 窮極의 目標로 해 오고 있으나 必要에 依하여 選択된 蘇聯의 平和共存路線을 時代別로 区分해 보면 第1期の 「레닌·스탈린」 時代, 第2期の 「흐루시초프」 時代 第3期の 「브

레즈네프, 코시킨」時代로 나눌 수 있다. 레닌은 平和共存이란 用語를 使用하지 안했으나 平和共生이란 말을 썼고 1922年中葉에 實質적인 平和共存의 推進者가 되어 1925年の 第14次 党大会와 27年の 第15次 党大会에서 外交路線으로 確認된 바 있다.

그러나 레닌과 스탈린時代의 對外戰略의 思考는 亦是 이 地上에 資本主義와 帝國主義가 存在하는 限 社會主義와의 戰爭은 避할 수 없다는 戰爭不可避論이었다. 그러던 것이 1956年 第20次 党大会에서 戰爭不可避論은 후루시초프에 依하여 根本적으로 修正되었는데 후루시초프는 戰爭이란 宿命的으로 避할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 宣言하고 戰爭은 避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雙方에 破滅을 갖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主張한 바 있다. 論者에 따라서는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 理論에서 發展된 平和共存論은 一時的 戰術이 지만 후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은 一時的 戰術이 아닌 國際關係의 現實에 비추어 不可避하게 主張된 것으로서 비록 社會主義體制의 優越性을 前提로 하고 있기는 하나 어쨌든 相異한 兩體制間의 共存을 眞實로 認定한 것이었다는 主張을 하고 있다.

70年代初 닉슨大統領도 < New Strategy for peace >란 對外政策 敎書에서 「中國人은 國際社會에서 孤立되어선 안될 偉대한 活力的 人民이다. 長期的인 眼目에서 安全하고 永久的인 國際秩序는 이들 7億國民이 寄与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宣言한 意圖는 從來의 封鎖政策을 止揚하고 中共과의 關係正常化를 通해서 相互共存關係를 維持하자는 것이다. 이 目的의 實行이 닉슨 大統領의 北京訪問인 것이며 모스크바訪問의 意義인 것이다.

2. 共存政策의 原理

共存政策의 基調는 現狀을 變革치 않고 相互間의 現狀을 認定한다고 하는 現狀維持政策에 政策目標을 두고 있기 때문에 現在의 權力關係가 根本적으로 變更되지 않기 위해서는 力學的인 均衡의 維持가 不可避한 것이다. 그러므로 均衡된 힘이 維持되는 限 共存의 安定性은 確保되는 것이며 反對로 相互間의 勢力이 均衡을 維持하지 못하고 있는 狀態에서는 共存의 安定性은 희박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共存政策 自体가 힘의 均衡이라는 力學法則에 바탕을 둔 不安全한 政策임에도 不拘하고 共存政策이 追求되는 理由는 戰爭을 避할 수 있는 共通된 利益이 뒷 따르기 때문이다. 50年代 後半期에 美, 蘇의 共存이 要求되었던 理由와 또 이 共存政策의 追求로 因하여 美, 蘇 兩大國이 얻을 수 있었던 共同利益과 國際社會의 緊張을 解消하는데 寄與했던 影響은 決코 적지 않었다고 생각한다. 一般的으로 現狀維持政策은 歷史上의 一定한 時點을 基準으로 하여 自國의 政治的 地位가 滿足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國家는 大體的으로 그 狀態를 持續함으로써 自國의 安全과 利益을 누리려고 努力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自國의 國家利益을 위하여 有利한 國際 權力關係를 그 現狀대로 持續할 것을 目的으로 하여 推進되는 政策이 곧 現狀維持 政策이기 때문에 이 政策이 가장 典型的으로 나타나는 것은 國家間의 戰爭이 終結되었을 때 이다. 그러나 第2次 世界大戰後 美, 蘇의 共存政策은 그 性格과 次元을 若干 달리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美, 蘇 兩大國을 主軸으로 分化된 東西 對立狀態에서 相互間에 無限定한 軍備競爭을 止揚하고 現在 兩大國이 確保하고 있는 勢力圈에 어떠한 變革을 하지 않는 狀態에서 現狀을 維持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힘의 均衡이 必要條件이 됨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다. 따라서 共存政策의 限界가 相互利益이 共存하는 條件下에서 維持되는것 처럼 現狀維持 政策中에서도 가장 積極的인 形態의 하나인 國際協調 政策 (policy of concert) 亦是 關係國間의 共通된 利害問題를 互讓的 妥協精神에 依해서 만이 維持 發展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오늘날 韓國의 境遇에 있어서와 같이 國家間의 現狀維持가 아니고 分斷된 南北關係에 있어서 共存問題는 理論的인 面에서도 그렇고 實際問題에 있어서도 特殊한 性格과 要因을 內包하게 된다. 南北韓의 共存政策의 必要性은 緊張을 緩和한다고 하는 點에서는 美, 蘇의 共存政策이 追求하는 政策目標과 다를바가 없지만 現在 主張되고 있는 南北韓의 共存이라고 하는 現狀維持는 將次에 統一目標을 達成하는 現狀變革의 中間段階가 된다는 點에서나 共存의 論理的 妥當性을 民族的 主体意識에 求하고 있는 點에서 그 性格과 次元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分斷國의 共存이란 우리가 願하건 願치 않건 이미 그렇게 해 왔고 固定이 強要되는 方向으로 國際 情勢가 움직여 왔다고 보아지며 特히 70年代에 美國 Nixon大統領의 「Age of Negotiation」은 緊張 緩和를 加速化시켰으며 蘇聯과 中共의 對立은 共存의 可能

성을 擴大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共存은 雙務關係이며 二重的인 制約과 影響을 받
지 않을 수 없는 性格을 갖고 있으면서도 統一志向的인 共存政策이
란 點에 特徵을 賦與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南北
韓의 共存狀態를 維持하기 위해서 어떤 方法으로 力學的 均衡關係
를 設定할 수 있느냐가 問題인바 韓國의 경우는 東西 獨逸의 關係
와는 달리 極限的인 敵對感에서 派生되고 있는 信賴性의 欠如로 말
미암아 南北對話가 進行되고 있는 現時點에서도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우리는 南北韓의 共存이 分斷狀態의 固定化가
아닌 民族統一이라고 하는 民族至上의 課業을 成就하기 위한 한 前
進的인 段階로써 南北韓의 共存을 考慮하는 것이며 이 共存政策의
實踐으로 韓半島에서의 緊張을 緩和하여 窮極的으로는 民族統一의 必
要 條件을 하나 하나 回復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當局의 對南戰略이 革命赤化 統一이란 共產主義的 信仰을 추호도
變更하지 않은채 南北對話를 合法的인 對南戰略의 手段으로 逆利用하
고 있는것을 目擊할 때 南北韓의 共存은 不安한 狀況에서 論理化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北韓은 南韓의 힘이 지나치게 劣勢에 있지 않기 때문에 南北對話
와 같은 交涉을 하고 있는 것이지 힘의 均衡狀態가 破壞되어 北韓
에게 有利할 때에는 南北對話가 아닌 武力赤化 政策을 서슴치 않고
恣行하게 될 것이므로 北韓에 對한 힘의 維持는 韓半島에서의 悲劇
을 未然에 防止하는 絶對條件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

에서 主張하는 外軍撤収 主張과 UNCURK 解体 問題는 多分히 南韓의 勢力을 弱화시키고자 하는 戰略임을 알 수 있다. 北韓의 經濟體制와 軍事政策에서 볼 수 있듯이 北韓의 優越性 確保政策은 우리로 하여금 生存을 위한 対応策의 重大問題로 提起되고 있음을看過할 수 없다.

V. 韓國의 統一政策과 均衡維持 方案

韓半島의 分斷은 元來부터 韓民族의 文化的, 經濟的, 社會的 現實에 不合理한 이른바 國史에 있어서의 他律的 現象에 屬하기 때문에 우리 民族이 國土의 分斷을 甘受할 수 없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不幸히 強大國의 戰後處理 過程에서 빚어진 國土의 分斷이 四半世紀가 지나는 동안 南北韓은 各己 理念과 體制가 다른 權力構造를 갖으면서 相互對立을 해 왔던 것이다. 더구나 6.25의 民族相殘은 甚한 不信과 敵對感을 極大化시켜 南北은 같은 한民族이면서도 交流를 禁忌로 믿어 왔다. 그러던 것이 70年代의 國際情勢가 對立에서 協商으로 一大轉換을 하게됨에 따라 南北間에 對話가 오고 가게 되었고 마침내 7.4 南北 共同聲明이 發表되어 民族統一問題가 論議하듯금 되었다. 그러나 統一이란 쉽게 이루어지는 問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苦悶이 있는 것이다. 統一을 이루는데는 南北間의 協調로 解決할 수 있는 領域이 있고 南北韓間의 意志만으로 解決될 수 없는 領域이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劃策하고 있는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政策과 韓半島를 둘러 싸고 있는 四強의 現狀凍結政策은 統一祖國의 꿈을 實現하는데 重大한 挑戰 要因으로써 民族統一의 阻害要因이 되고 있다. 國土를 統一하는 원천적인 힘과 妥當性은 民族意志와 民族의 連帶意識에서 求할 수 밖에 없지만 統一의 形態와 方法에 있어서 南北이 各己 判異함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우리 民族의 統一은 우리 民族이 分斷된 現在의 狀態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狀態로의 發展이어야 하기 때문에 人間の 自由와 平等 그리고 尊嚴性이 保障되는 自由民主的 體制下에서의 統一이어야 함은 當然한 論理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周辺에서 統一이란 概念과 이에 對한 價值問題에 있어서 混同하고 있는 傾向이 없지 않으므로 于先 統一의 概念定立부터 明白히 해 둘 必要를 느낀다.

政治的 意味에 있어서의 統一이란 權力構造의 一元化를 뜻하는 것으로서 政治的 統一과 社會, 文化 그리고 經濟의 統合(integration)과는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 것이다. 캐나다, 馬來, 나이지리아 등의 多民族(多人種) 國家에서 볼 수 있듯이 政治的 權力構造의 一元化는 社會的, 文化的 統合의 뒷받침을 못받는 境遇에 그것은 커다란 社會紛爭의 原因이 되었던 것이다. 故로 概念上 우리는 政治的 意味에 있어서의 統一과 社會, 文化, 經濟的 意味에서의 統合은 區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皮相的인 생각에서 統一問題를 하나의 單純한 政治的 問題로만 잘 못 認識하기 쉬우나 그것은 統一問題가 內包하고 있는 根本的인 國家觀의 問題와 나아가서는 人生觀의 問題 自体를 無視한 그릇된 判斷에서 오는 結果인 것이다. 統一된 韓國을 바란다는것은 結局 一種의 國家觀의 設定을 意味하며 同時에 그것은 곧 政治哲學으로 直結되는 것이기 때문에 價值觀의 問題를 떠난 無條件의 統一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韓國의 統一政策은 國際環境과 韓半島의 情勢 變化에 따라 若干의

變化를 해 왔는데 自由黨治下の 統一方案은 北進統一이었으며 또한 韓國을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이기 때문에 大韓民國의 主權下에 大韓民國의 憲法 秩序下에 南北統一이 되어야 한다는 立場이었다.

그러나 1954年 제네바會議에서 밝힌 統一方案은

- 1) UN의 決議에 依한 UN監視下의 自由選舉 實施
- 2) 現在까지 自由選舉가 不可能했던 北韓에서 大韓民國 憲法上의 節次에 依한 自由選舉 實施
- 3) 全韓國 議會의 議員數는 土着人口에 正比例 한다는 것等인데 對해 北韓은 外國軍 撤収와 兵力 10萬名總으로 相互減縮하고 南北韓代表 委員會를 構成하자는 것等이었다.

그後 4.19革命으로 誕生된 民主黨 政府에서도 54年 제네바會議에서 韓國 代表가 提示한 UN監視下의 自由選舉 原則과 人口 比例에 依한 選舉原則을 統一方案으로 提示했으나 1960年 金日成은 8.15慶祝 演說에서 南北韓 聯邦制案을 主張하고 南北代表로 構成되는 最高 民族會議을 設置하자고 提議했다. 이 主張의 底意는 國際社會에서 南韓과 同等한 資格을 얻고자 했던 北韓의 政略의 意圖은 否認할 수 없다.

5.16革命으로 成立된 軍事政府의 統一政策은 革命公約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民族的 宿願인 國土統一을 위하여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全力을 集中한다!」고 闡明함으로써 國土統一은 武力에 依한 方法이 아니고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課業을 追求하되 UN監視下의 南北 總選舉 實施를 強調했다.

그後 民主共和黨의 政策 基調演說에서 提示한 統一方案 亦是 從來의 立場과 크게 다른바 없이 U N監視下의 南北韓 人口比例에 依한 自由選舉方案을 緊持하고 積極外交가 統一成就에 다가서는 確實한 作業인 同時에 祖國 近代化는 國土統一의 大前提이며 中間目標라고 했다.

이와같이 國土統一의 方法은 平和的 統一이라는 大前提가 設定되었지만 보다 具體的인 方法으로 어떻게 接近하고 相互交流하고 統一을 이룰 것이냐가 問題인 것이다. 그래서 段階的 接近方法에 依해 人道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이 이루어졌고 그後 南北 調節 委員會가 構成되어 南北韓 關係는 一次的으로 對話의 通話를 마련함으로써 對決의 構造에서 對話의 構造로 바꾸워졌다. 對話는 緊張을 緩和하는 숨구멍 口實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統一에의 接近에 絶對 要件이 되는 것이다. 韓半島에서의 緊張 緩和는 相互間에 相對方을 威脅하지 않고 現狀을 根本적으로 變更하지 않는다는 條件下에서 可能하며 實際로 힘의 均衡이라고 하는 原理위에서 南北韓의 共存이 維持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不信에 依한 均衡의 不安性은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南北韓의 共存은 統一으로 接近하는 不可避한 中間段階로서의 性格을 갖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南北分斷을 求久化하게 될 「두 개의 韓國」化 政策을 企圖하고 있다. 例를 들면 南韓이 이미 加入되어 있는 國際機構에 加入해서 事實上 두 개의 韓國政府를 既定事實化 하려는 움직임은 南北對話가 始作된 以後 I P U나 W H O에 加

入한 事例에서 充分히 說明될 수 있다. 現在 南北間의 勢力分配에 있어서 國際社會에서 54對 88이라고 하는 優勢한 立場을 韓國이 確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將次 北韓의 緊요한 功勢에 對備하여 合理的인 對策이 研究되어져야 할 줄 믿는다.

우리는 이 時点에서 南北韓의 共存이 왜 必要하며 共存에서 얻을 수 있는 共同利益이 무엇이냐를 獨獨히 北韓當局者에게 認識시킬 必要가 있다고 믿는다.

共存은 平和的인 相互關係의 維持를 基本的인 哲學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誠意있는 相互信賴의 維持가 必要한 것이며 同時에 緊張을 緩和하는 措置가 漸進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特히 軍事政 策面에서의 現狀維持와 軍事費 削減등은 共存의 可能性을 立証하는 銳敏한 關心 꺼리인 것이다.

아메리칸大學의 신 인섭教授가 「Problems of Communism」 (1973 : 春季号) 紙에 Foreign and Reunification Policies란 題 目으로 發表한 北韓의 外交政策속에서도 指摘하고 있지만 1971年 金日成은 北韓이 1971年부터 76年의 計劃期間을 爲해 立案된 國防 費 支出計劃을 實質的으로 減縮했다고 發表했고 또한 72年 4月 金日成은 72年度 國防費의 大幅削減을 發表했음에도 不拘하고 同年 4月 25日 北韓軍 總參謀長 吳振宇는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侵略者들도 분쇄할 能力을 갖고 있는 全人民 全國家 防衛體制를 完成 했음을 自信있게 말 할 수 있다」고 言明함으로써 北韓當局者들의 矛盾性과 虛構性을 폭로했다.

金日成은 「戰爭의 위험성을 避하기 위하여」 南北韓 軍隊를 同一하게 減縮하자고 口를 뱉어놓고 있지만 이것은 戰術的 宣傳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美軍의 撤退를 保障하기 위해 自身의 好戰性을 偽裝하기 위한 手法인 것이다. 北韓은 統一政策의 絶對條件으로 南韓에서의 美軍 撤退를 主張해 오고 있는데 最近에 와서 主体性을 強調하고 있는 것은 韓國問題를 東西이데올로기 紛爭과 強大國 政治에서 떼어내어 韓國人 自身들의 問題로 만들려고 努力하고 있는데 이는 北韓의 이미지를 平和的 政權으로 분장시켜 國際社會에서 南韓과 겨루워 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最近 日本 政府의 北韓担当 關係기관은 지난해 北韓預算의 執行內容과 今年 預算案을 分析하고 北韓이 發表하고 있는 國防費 削減은 予算面에서 볼 때 根據가 없고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報道한바 있다. 北韓은 71年度의 國防費를 總예산의 31.1%, 72年度는 17%, 73年度는 15%로 각각 大幅 削減했다고 했는데 人民經濟費와 社會文化費의 增加率과 計數가 全히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北韓의 軍事力이 實際로 減縮되었다는 情報마저도 없는 以上 北韓 正規軍 40萬名과 勞農 赤衛隊 125萬名을 維持할려면 軍事費가 總預算의 31%에서 一時에 17%나 15%線으로 削減될 수 없다고 公開한바 있다.

事實上 北韓은 四大 軍事路線을 追求하고 있으면서도 金日成은 統一의 三大原則으로 첫째 外勞와 外部의 干涉없이 獨立的으로 達成되어야 하며, 둘째 平和的 手段에 依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双方은 理念 思想과 社会制度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民族의 大同團結에 依해서 遂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등 二律背反的인 統一論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共產主義者들의 目標와 手法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虛点과 意圖를 正確히 把握해서 韓半島의 緊張을 解消하는 方向으로 誘導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分野에 있어서 北韓과의 力學的 均衡을 維持하면서 相對的인 優位性을 堅持해 나가는 것이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 軍事的으로는 美國과의 緊密한 協調를 維持하면서 韓美 防衛 體制의 結束과 國軍裝備 現代化를 期해야 할 것이며 經濟的으로는 80年代의 繁榮을 이룩하는 第3次 經濟開發 計劃을 성공적으로 遂行해 가면서 南北統一을 위한 國民的 總合力을 集結하는데 努力해야 하려니와 統一에 對備한 國內體制의 整備로서 自信있는 對北關係를 推進하여 北韓住民의 解放運動을 幅넓게 展開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형식이든 北韓과의 交流를 增大시켜 北韓住民들에게 比較感覺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은 共存을 위한 힘의 均衡에 커다란 部分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同時에 南北間의 民族的 連繫性 回復을 위해 南北韓間의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人道的 諸分野에서 附合適格性 (Compatibility) 을 科學的으로 分析 檢討하여 機能的 接近 (functional approach) 을 果敢히 試圖해 보는 것도 有益한 方法으로 믿어 진다.

아울러 南北對話의 過程에서 意識했던 内部의 脆弱性을 補完하는

努力을 各方面에서 進行시켜야 할 것이며 同時에 國論 統一에 先導的 任務를 担当할 核心要員의 養成을 計劃하여 一般 國民大衆들에게 政府의 統一政策과 南北對話의 進行 現況을 幅넓게 周知시켜 確固한 統一觀을 確立해 주는 것이 重要的 일이라 생각한다.

尙속까지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는 南北 調節委員會의 機能을 보다 積極的으로 活用하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것인바 예를 들면 政治 分科 委員會에서는 南北統一 一般에 關한 次元높은 政策審議와 그方法 및 現在 進行中인 南北接觸의 調整을 맡도록하고 軍事分科에서는 南北韓의 漸進的 軍縮問題와 軍事分界線上의 平和的 利用과 武力衝突의 防止에 關한 問題를 다루고 外交分科에서는 두個의 韓國을 專突化 시키지 않는 原則下에서 이미 韓國이 加入된 國際機構에는 北韓이 加入하지 않고 北韓이 加入된 機構에는 南韓이 加入하지 않으며 또 敵對感을 誘發하는 政治·軍事기구와 其他 條約에는 參加하지 않는 方法등을 研究케하고 經濟分野에서는 非軍事的인 部門에 投資를 增大시켜 平和産業을 育成하는 問題와 이 目的을 위하여 共同投資와 協力 關係 技術交流 問題를 協談하고 軍事分界線上의 平和施設에 對한 共同參與와 平和的 利用에 關한 問題, 잉여資源의 바다 貿易과 産業情報 및 各種 統計資料의 交換등 共同利益에 關한 廣範한 問題를 다루도록 하며 文化分野에서는 言語障壁의 解消와 標準化 問題, 民族文化의 發展策, 科學者, 學者, 記者, 體育人의 交流 國際競技에 의 全韓國 單一팀 構成問題와 學者間의 共同研究計劃등을 檢討하여 實現 可能한 問題부터 하나씩 하나씩 解決해 감으로서 相互間의 信賴

감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北韓住民들로 하여금
自我를 發見할 수 있는 契機를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對外的 關係에 있어서도 이미北韓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나라
들을 除外하고 南北對話가 進行되고 있는 72年 以來北韓을 國際法
上 承認하고 外交關係를 樹立한 나라가 Cameroon, Rwanda, Chile,
Senegal, Upper Volta, Pakistan, Zaire, Malagasy이며 73年에
들어와서도 지난 4月 6日 Sweden이, 13日 Finland가 15日에
는 Iran이北韓과 修交 關係를 맺는等 두個의 韓國을 既定事實化
하려는 움직임이 짙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징후가 더욱 있을
것이라고 予想할때 이에 對한 對策樹立이 마련 되어야 하겠지만 政
府는 積極外交의 展開로 이와같은 不合理한 事態를 予防토록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여 佛蘭西 政府의 立場처럼 南韓이北韓을 承認하기
前까지 불란서 정부로서는 承認을 하지 않을것이란 保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設便 南北韓을 共히 承認한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의
立場을 支持 할 수 있도록 外交力量을 集中시켜야 할 것이다.

事態發展에 따라서는 中共이나 蘇聯과의 外交關係를 正常化시키는
問題까지도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政府에서는 非敵性國家에 對한 伸縮性있는 外交政策을 表明한
바 있으나 보다 突利的인 새로운 外交感覺으로 韓國의 國際的 地位
를 確固히 다져 나가야 할것이다.

VI. 結 言

아시아 國際政治를 主導하게 될 美. 蘇. 中共. 日本등 四大強國의 共通된 利害關係는 最小限 이 地域에 있어서 現狀變革이 惹起되지 않는 狀態에서 共存의 均衡關係가 維持되기를 希望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一聯의 平和共存 體制下에서는 強大國 秩序의 維持에 背馳되는 分斷國家의 統一問題는 現狀打破의 要因으로 外面當하거나 아니면 現狀凍結을 強要할 우려가 없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情勢속에서 分斷國은 계각기 弱極的인 國土統一을 標榜하면서 暫定的인 現實認定을 受諾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 西獨의 統一政策에서 示唆해 주고 있는바와 같이 操急하게 統一을 追求하지 않고 分斷의 現實속에서 相互間의 弱點을 補完하면서 人道主義 苦痛을 段階的으로 解決했던 西獨의 再統一政策은 우리에게 큰 教訓을 주고 있다. 그러나 典型的인 分斷國家로서의 性格은 같을는지 모르지만 獨逸과 韓國의 統一條件은 여러點에서 다르다고 하겠다.

첫째 西獨과는 달리 韓半島의 南北關係는 共存條件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바 6.25의 流血鬪爭과 極度의 敵對感에서 動脈硬化가된 不信感이 尙存하고 있는데 反해서 獨逸의 境遇는 戰爭을 치루지 안했기 때문에 分斷의 理由를 第1次的으로 外部勢力의 作用에 들릴 수 있는 理論的 餘地를 갖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고

둘째 獨逸의 境遇에는 分斷狀況에 影響을 주는 急激한 變化가 없는데 아시아 地域에서는 新興 強大國인 中共과 日本이 登場함으로써

周邊情勢의 變化에 決定的인 要因을 이루고 있고

셋째 獨逸은 東西가 各各 NATO와 WarSow 兩 集團的 安全保障 體制와 獨立經濟圈으로서 E.E.C와 COMMECON을 形成하여 體制間의 相對的 均衡關係를 維持하고 있는데 反해서 우리는 美國 一辺倒의 依存性을 脱皮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西獨이 政治的 安定度에 있어서나 經濟的 實力에 있어서 東獨보다 優越한 地位를 占하고 있으나 韓國은 北韓에 對해 壓倒的 地位를 갖지 못하고 있고

다섯째 地政學的으로 韓國은 中共과 日本에 隣接하고 있어 四大強國間의 緩衝地帶로서의 性格이 뚜렷하지만 獨逸처럼 強大國들이 強硬하게 再統一을 抑制하는 立場과는 多小 差異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歐羅巴에서는 緊張緩和政策을 推進할 수 있는 必要條件으로서 東西 부력間에 政治·經濟·軍事等 諸分野에서 體制의 安定과 現實的인 均衡이 維持되고 있으며 歐羅巴 諸國들은 産業國家로 成長하여 平準化된 中産層 社會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政黨의 脫이데올로기化 傾向에 따른 多元化 現象은 아시아 地域의 狀況과는 對照的인 側面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南北韓의 民族 統一이란 問題는 相當한 條件 成熟을 必要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性急한 統一論議와 方案은 삼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條件成熟이 어느때 가서 이루어질 것이냐하는 問題가 提起될 수 있겠지만 이에 對한 確實한 對答은 누구도 할 수 없는 未知數인 것이다. 그렇다고 國土統一에 對한

絶望性을 意味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려운 現在의 南北膠着關係
를 打開하는데 있어서 北韓当局者들이 얼마나 誠意를 갖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韓國으로서는 南北間의 交流
通路를 擴大해 갈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北韓과의 어려운
對話는 터 좋았으나 이對話의 구멍이 너무 좁고 너무 限定的인
通路로서의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이 보다
크게 腫려야 할 必要性을 切感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幅넓은
國民的 參與와 支持가 要求되어 지는 것이다.

이對話가 막히거나 斷切될 경우에는 韓半島의 緊張은 相對的으로
高潮된다는 事實을 認定할 때 南北對話는 어떠한 隘路와 難關이 있
드라도 擴大되어 가야하는 것이다.

分析國統一에 關한 理論모형中에 機能主義 理論이 經濟學者나 社會
學者들에 依해서 支持되고 있는데 우리 政府의 立場도 非政治的 問
題로 부터의 機能的 接近을 主張하는 機能主義를 統合의 通路로서
適合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機能의 單一化가 全面的인 單一化를 가져왔던 事例로는
15世紀初 以後의 스위스 칸톤과 英國과 스코트랜드 19世紀의 獨
逸關稅同盟 (German Customs Union) 그리고 聯邦規約下的 美國 西
部領土 共同管理등도 있지만 伊太利의 境遇는 어떤 重要的 機能의
單一化가 先行되지 않고도 統一이 이룩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英國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 헝가리의 경우도 機能的 單一化의
時期가 全面的인 單一化에 先行했었지만 이들 單一化된 共同体들은

끝내 와해되고 말았다는 점을想起할 때 機能主義 理論이 南北對峙에 어느 程度의 適合性을 갖일것이나에 對해서는 問題視된다.

안마디로 이 機能主義는 統合의 理想主義者라고 불리우는 David Mitrany에 依해서 주장되었는데 이 論理의 第1要件은 反政治的 部分 (anti-Political Corner)에서 出發하고 있으며 發達の 自動現象 (the Automatism of development)은 現狀 福祉指向 世界에서 非政治的 專門機構의 創設을 더욱 不可避하게 要求하게 되기 때문에 協力の 組織속에 맡겨 둘게 될것이고 弱極的으로는 政治家들도「 A Working Peace System」에의 參與를 하게 된다고 했지만 Mitrany는 철저하게 技術分野와 政治分野를 分離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Hass는 權力과 福祉를 나눌수 없다는 立場에서 functionalism 理論을 修正한 Neofunctionalism을 主唱하고 있거니와 이밖에도 Lindberg나 Nyo. Etzioni도 거의 같은 立場을 取하고 있으나 아무튼 南北對峙가 갖는 Convergence theory (集中理論)의 希望이나 Divergence theory (離散說)가 갖는 失望도 現時點에서는 將來에의 結果를 逕斷 할 수는 없는 일 인것 같다 南北 赤十字會談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先人道, 後政治」와「 先政治, 後人道」의 基本戰略上의 相異性은 Lipsot이 指摘한대로 社會의 變動에 따라 理念의 問題가 석퇴 해진다는것이 결코 이데올로기의 終末을 告한다는 것이 아니라 事實을 實感케 해 준다.

機能이란 構造를 前提로한 것이기 때문에 南北의 큰 政治的 構造 속에 이서지는 對話는 政治的 問題의 非政治化의 問題이지 政治를

떠난 問題는 아닌 것이다. 故로 赤十字會談이 政治的. 行政的 機能을 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意味에서 南北調節 委員會의 機能調整이 더욱 強調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南北韓間의 共存方案을 導出함에 있어서 우리가 直面하게 되는 問題는 北韓의 國際的 地位問題라 할 수 있는데 共存에는 相對的 地位認定이 前提되어야 하는바 우리 政府의 基本立場이 韓半島에서의 大韓民國은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立場에서 對北關係를 維持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北韓當局者들을 자극하여 最近에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韓國이 加入되어 있는 WHO와 같은 國際機構에의 加入에 積極攻勢를 펴게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方法은 繼續되리라고 본다. 그럼으로써 北韓은 韓國과 同等한 資格이 있다고 主張할 것이며 이것은 結局 國際社會에서 兩個의 韓國을 事實化하겠다는 術策으로 歸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事態를 豫想해서 우리 政府로서는 北韓을 國際法的인 承認은 아니라 하드레도 現實的인 北韓의 地位를 特殊關係로 固定시키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筈이다.

또한 우리로서 南北韓間의 共存은 相互間에 利益이 되는것이므로 北韓의 無謀한 挑撥을 豫防하기 위해 中共과 蘇聯과의 關係改善의 試圖를 自主的으로 推進하여 萬一의 경우 北韓의 南侵企圖에 이들 強大國들이 合勢를 하지 못하도록 自主性에 바탕을 둔 利害關係의 設定問題도 考慮에 넣어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現時點에서 相當한 期間동안은 中共과 蘇聯의 對立과 反目이 繼續될 것을 豫想해서 直接的인 交渉이 아니면 干廻的인 方法에 依

하여 關係改善을 試圖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東歐권에 對한 外交를 積極化하여 相互實利있는 國家間的 關係設定이 必要하며 北韓과 修交 中인 나라일지라도 보다 積極的인 立場에서 紐帶關係를 맺어 가는 外交姿勢는 바람직한 實利外交라 믿는다.

특히 地域協力 機構問題에 있어서도 協力 對象國家의 選定問題는 綿密한 研究檢討를 거쳐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南北對話가 進行되고 있는 過程에서도 北韓은 尙諜등 武力 挑發을 敢行하면서 南韓의 指導層에 對한 악랄한 攻擊 非難을 하고 있지만 이에 對한 慎重한 對應措置를 하면서 共存을 위한 緊張緩和狀態를 維持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 3月 12日字 눌웨이의 有力紙「모르겐 블라데트」가 牧歌의 終末이란 題目下에 다른 記事中에서 韓半島上에 잠시 存在하는가 싶었던 牧歌는 벌써 사라지려는 가하고 北韓의 非難 攻勢를 비판 일이 있다. 이와같이 北韓은 南北共同聲明에도 不拘하고 같은 方法으로 南韓赤化를 노리고 있으므로 이에 對한 우리의 對應策은 協商에 앞서 北韓當局者들을 끈기있게 共存의 큰 길로 誘導하면서 實力面에서 北韓을 壓倒할 수 있는 內實있는 努力을 差疾없이 進行시켜가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이 우리보다 凌越한 實力을 갖게 될 때에는 共存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對內的으로는 維新精神에 立脚하여 모든 不榮理와 非能率을 排除하면서 國民的 總和를 期해야 할 것이며 南北對話 過程에서는 可能的 限·平和事業에의 合作投資와 共同協力등의 빈번한 交流를 通해 北韓住民들을 北韓의 閉鎖社會로 부터 解放시키는 契機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外交部面에 있어서 固着된 外交路線을 신축성있는 새로운 外交感覺으로 自主外交를 積極 推進하여 共產國家와의 經濟交流를 擴大해 가는것이 北韓當局者들의 自制力을 認識시키는데도 效果가 있으리라 믿으며 過去 對話의 斷切 내지 失敗原因이 첫째 一方的 勝負를 追求한 Zero Sum Game 關係로 平和的 共存을 前提한 共通利益이 排除되었고 둘째로 變方體制問의 不信과 不安定으로 協商의 眞價를 제대로 評價할 수 없었다는데 있었음은 將次 南北共存 關係의 進展에 教訓的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